인문연구 제95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5, No. 1, pp.37~69
http://dx.doi.org/10.21211/JHUM.95.2

王昭君 형상의 문학적 轉形*

서주영** · 권응상***

〈차 례〉

1. 서론
2. 왕소군 이전의 화친 여성
3. 왕소군의 역사적 형상과 의의
4. 왕소군 형상의 문학적 전형
5. 결론

【국문초록】

왕소군(王昭君)은 B.C. 33년 한원제(漢元帝)가 한나라와 흉노(匈奴)의 화친을 위해 흉노의 호한야선우(呼韓邪单于)에게 하사한 여성이다. 그녀보다 앞서 화친을 목적으로 외국에 보내진 14명의 여성은 모두 한나라 황실의 공주라는 신분이었고, 그녀들 가운데에는 화친 여성 문학의 시작과 화친 여성 서사의 완결성을 갖춘 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4082394)
*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주저자)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교신저자)

성도 존재했다. 그런데, 왕소군은 이들보다 신분도 낮고, 구체적 서사도 허약하지만, 화친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중국 여성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왕소군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문학적 재서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녀라는 통속적 가치 외에, 역사적·민족적 의의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왕소군을 기록한 문헌에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의 전복과 비극적 여성상의 재창조라는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존재가 문화적 가치에 의해 전형(轉形)되어 문화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수용되는 것을 고찰하고 있다.

주제어 : 왕소군, 화친 여성, 『서경잡기』, 『후한서』, 『금조』

1. 서론

왕소군이 국경을 넘은 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부단한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원래의 이야기에 특수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결국 그녀는 전국시대의 서시(西施), 삼국시대의 초선(貂蟬), 당나라 시대의 양귀비(楊貴妃)와 함께 중국 4대 미녀로 등극하게 된다. 왕소군이 중국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여성을 제치고 중국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이 된 것에는 미녀라는 통속적 가치 외에, 중국을 대표할 만한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의미 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보면, 그녀는 이민족에게 보내진 다른 여성의 삶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시집을 갔다. 하지만, 중국 문학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전복시키고, 역사적 인물의 의미를 변형시켜 그녀를 비극적 여성으로 창조한 후, 그녀를 자신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만들었다.

학계에서도 왕소군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홍우흠은 왕소

군의 일대기와 관련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1] 이소현은 한대부터 원대까지의 왕소군의 형상을 기술하고 있다.[2] 유태규는 관방의 역사와 민간 고사를 구분하여 왕소군 서사를 분석하였고,[3] 그의 또 다른 논문은 왕소군의 출가를 "피동적인 昭君 묘사에서 벗어나 昭君 입장과 漢과 匈奴의 대등한 역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4] 또한, 강리는 화이관념(華夷觀念)을 토대로 시대별로 변형된 왕소군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5]

이상의 논문에 나타난 왕소군에 대한 고찰은 구성적 측면에서 본 논문과 비슷하지만, 왕소군 서사의 변형을 논하는 부분에서 논문과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왕소군의 화친 여성으로서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왕소군 이전의 화친 여성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고, 다시 왕소군에 관한 서사를 담고 있는 한대의 기록을 통해 왕소군의 역사적 형상과 그 의의를 고찰하고, 이어서 위진(魏晉) 시기에 이루어진 왕소군 형상의 문학적 전형 형태와 그 의의를 고찰했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왕소군에 대한 문학적 재창조가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가치로 변형시켜 수용하는 형태이며, 국가 이데올로기인 '충'과 윤리 이데올로기인 '정조' 문제의 문화적 해결 과정이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洪瑀欽, 「漢宮女 王昭君에 대한 中國人의 情感」, 『女性問題硏究』, 제13권, 1984, pp.85-101.
2) 이소현, 『王昭君 故事의 변천과정 硏究』, 東國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 2004.
3) 兪泰揆, 「王昭君 出嫁 和親의 主要 原因」, 『중국문화연구』, 제9호, 2006, pp.307-324.
4) 兪泰揆, 「西漢의 和親 역사와 王昭君 흉노 출가의 背景」, 『중국문화연구』, 제25호, 2014, pp.161-181.
5) 강리, 『왕소군의 이미지 변천과 화이관념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2014.

2. 왕소군 이전의 화친 여성

왕소군은 한대의 마지막 화친 여성이다. 따라서, 그녀의 출새(出塞)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우선 유목 국가로 보내진 화친 여성에 관한 고찰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한나라 역사 속에서 유목 국가에 바쳐진 여성은 모두 15명이 확인되는데, 왕소군을 제외하면 모두 황실의 공주들이다.[6] 이처럼 공주가 유목 국가로 보내진 것은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이래 흉노와 맺은 굴욕적인 화친에 기인한다.

흉노는 한나라의 서북쪽 일대의 유목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들은 씨족 단위로 이동하는 생활을 하는 까닭에 하나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기마술과 활에 능숙한 이들의 존재는 중국으로서는 무척 골치 아픈 세력이었다. 진시황은 221년에 천하를 통일한 다음, 몽염(蒙恬, B.C. ?－220)을 보내 서안의 북쪽에 있던 흉노를 토벌하고, 이들을 내몽고 지역에서 몰아내면서 만리장성을 쌓는다(B.C.215). 그런데, 기원전 3세기 무렵 이 유목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킨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바로 흉노의 영웅으로 불리는 묵돌선우(冒頓單于)다. 그는 진시황을 이은 이세(二世)가 등극한 같은 해에 자신을 제거하려 한 아버지 두만선우(頭曼單于)를 죽이고,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 내정을 정비한 이후, 동쪽으로는 동호(東胡)를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감숙성(甘肅省)의 월지(月氏)를 소그디아나(Sogdiana)로 쫓아내면서 거대한 흉노 제국을 만든다.[7]

중국에서는 기원전 202년에 유방(劉邦)이 한(漢)을 세운다. 진

---

6) 崔明德, 「漢唐和親簡表」, 『歷史教學』, 제03호, 1990, pp.50-54.

7) 정수일 저, 『실크로드 사전(ebook)』, 파주, 창비, 2013.(ebook의 경우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는 관계로 페이지 표시를 생략함)

(秦)나라와 항우(項羽)를 격파하면서 기세가 오른 중국의 영웅 유방과 "모든 활 쏘는 민족을 통일하여서 한 집안으로 만들었다(諸引弓之民, 並爲一家)."라 평가받은 흉노의 영웅 묵돌선우 간의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유방은 직접 30만 대군을 지휘하여 북상했다. 그러나, 초원지대에서의 흉노 기마병과 한나라 보병의 전투는 흉노의 압승으로 끝났다. 평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노라(馬上得天下)"라며 야전 능력을 과시했던 유방은 백등산(白登山)에서 겹겹이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를 맞는다. 결국, 유방은 묵돌선우의 부인에게 뇌물을 주고 간신히 포위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기원전 198년 묵돌선우의 아우를 자처하며 '형제화약(兄弟和約)'을 맺는다. 양국은 만리장성을 국경으로 확정하고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두 나라의 확실한 화친을 위해 한나라 공주가 흉노로 보내지게 된다.

처음 유방은 부인인 여후(呂后) 사이에 낳은 유일한 딸인 노원공주(魯元公主)를 보내려고 했다. 실제로는 친딸 대신 종실 여성을 대신 보냈지만, 공주를 흉노에 보내는 것에는 나름의 이해타산이 있었다. 고조에게 화친공주를 보내는 계책을 제시했던 유경(劉敬)은 그 이해득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 폐하께서 정말로 친 따님인 장공주를 흉노에게 시집보내고, 또 예물을 후하게 갖춰 보내신다면, 흉노는 한나라 적통 공주를 예를 성대히 차려 보낸 것으로 생각하여, 틀림없이 공주님을 연지(閼氏)로 삼을 것입니다. 공주님이 아들을 낳으면 태자가 되어 선우를 계승하게 되는 셈입니다. …… 묵돌이 있는 동안은 사위가, 죽으면 외손자가 선우(單于)가 될 것입니다(劉敬對曰：陛下誠能以適長公主妻之, 厚奉遺之, 彼知漢適女送厚, 蠻夷必慕以為閼氏, 生子必為太子. 代單于. 何者？貪漢重幣. 陛下以歲時漢所余彼所鮮數問遺, 因使辯士風諭以禮節. 冒頓在, 固為子婿；死, 則外孫為單于).[8]

---

8) 西漢・司馬遷, 『史記』卷九十九, 「劉敬叔孫通列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의 경우 페이지 표시가 되지 않음으로 페이

굴욕적으로 화친공주를 보내는 것에 대한 궁핍한 변명으로 보이는 이 서사는 무제(武帝) 시기 오손(烏孫)으로 보내진 해우공주(解憂公主)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실현되지만, 흉노로 보내진 여성은 이런 불가능한 국가적 임무를 지닌 체 국가적 명령에 따라 자기를 희생하며 원치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존재였다.

한고조를 이은 한혜제(漢惠帝)에서 한경제(漢景帝)까지인 기원전 210년에서 141년까지의 70년 동안 한나라는 8명의 화친공주를 흉노로 보낸다. 이 시기는 한나라가 흉노보다 열세에 처한 기간으로, 이 시기 화친공주는 한나라가 흉노와 맺은 형제맹약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경제를 이은 무제 시기에 변화를 맞는다. 무제는 매우 전략적으로 화친공주를 활용했는데, 즉위년(B.C.140)에는 자신의 딸을 흉노에 화친공주로 보내는 결단력을 보인다.[9] 이는 분명 당시 흉노의 노상선우(老上單于)를 기만하는 술책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다음 해(B.C. 139)에 장건(張騫)을 서역으로 파견하여 월지국과 동맹관계를 맺어 흉노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무제는 마읍(馬邑) 전투(B.C.133)를 시작으로, 기원전 90년까지 40여 년에 걸쳐 흉노와 15번의 대규모 전쟁을 벌였는데,[10] 그 전개 양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특히 원광(元光) 6년, 위청(衛青)과 곽거병(霍去病)은 흉노를 몽고초원에서 몰아내는 큰 성과를 올린다. 무제는 이 승리를 통해 하서회랑(河西回廊)과 하투평원(河套平原)을 차지했고, 감숙성(甘肅省)의 주천(酒泉), 무위(武威), 장액(張掖), 돈황(敦煌)에 하서사군(河西四郡)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끝끝내 흉노를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었다.

무제가 기원전 110년에 오손에 보냈던 화친공주는 자기 조카딸

지 표시를 생략함)

9) 崔明德, 앞의 논문, p.51.

10) 台灣三軍大學,『中國曆代戰爭史・第三冊』, 軍事譯文出版社, 1983. p.160.

인 유세군(刘細君)이다. 그녀는 화친공주에 관한 구체적 기록을 남긴 최초의 여성으로, 화친공주의 전형적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그녀는 일명 강도공주(江都公主)라고 불리는데, 그녀의 아버지 강도왕(江都王) 유건(劉建)은 경제의 아들 유비(劉非, B.C.168-B.C.128)의 아들로 가학적 변태성욕자였다.[11] 이런 사실은 그가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의 반란에 공모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무제 원수(元狩) 2년(B.C.121)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유세군은 무제의 명으로 오손으로 가서 오손의 왕인 엽교미(猎骄靡) 곤막(昆莫)의 부인이 되었다. 『한서』에 의하면 그녀는 자신의 거처를 스스로 지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과 패물을 나누어 줄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12] 어떻게 보면 역적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부귀한 오손 왕후가 되었으니, 지위와 명예가 한나라에 있을 때보다 높아지고 풍족한 삶을 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서·서역전』에는 그녀의 고단한 삶에 대한 비관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담긴 슬픈 시를 기록하고 있다.

> 吾家嫁我兮天一方. 내 집안에서 나를 하늘 끝으로 시집 보내니,
> 遠托異國兮烏孫王. 멀리 타국의 오손 왕에게 의탁하게 되었네.
> 穹廬爲室兮旃爲牆. 양탄자로 방과 담장을 만들고,
> 以肉爲食兮酪爲漿. 고기를 주식으로 먹고 유락을 마시네.
> 居常土思兮心內傷.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구나.
> 願爲黃鵠兮歸故鄉. 황곡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네.[13]

이 시에서 '가족'이 자신을 '하늘 끝(天一方)'으로 보냈다는 표현은 국가에 떠밀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보내진 것에

---

11) 東漢·班固, 『前漢書』卷五十三, 「景十三王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12) 東漢·班固, 『前漢書』卷九十六下, 「西域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 置酒飮食, 以幣帛賜王左右貴人.
13) 東漢·班固, 『前漢書』卷九十六下, 「西域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것이다. 본래 반역자의 딸이었던 그녀가 이역 만리 떨어진 오손에 가서 왕비의 신분이 되기는 했지만, '천막', '양탄자', '고기', '유락'과 같은 오손의 주거 환경과 음식 습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고충이 있었다. 또한, 말도 통하지 않는 늙은 왕의 부인이 되어야 했으며,[14] 이것은 원치 않은 결혼이기에 더욱 큰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이런 불행한 결혼과 불편한 생활은 그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자극했다. 그래서, 마지막 구에서 그녀는 자신의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황곡(黃鵠)이 되어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표현했다. 황곡은 한 번 날면 천 리를 난다고 알려진 전설의 새이니,[15] 당장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녀가 지은 이 시에는 버려진 원망과 삶의 어려움, 신세 한탄,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란 정서가 있고, 이는 후대 왕소군 문학에서 그대로 계승된다.[16]

화친 여성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유목민족의 수계혼(收繼婚) 풍습이었다.

> 엽교미 곤막은 ……, 손자 잠취(岑陬-관직명) 군수미(军须靡)가 공주를 부인으로 삼게 하려고 했다. 공주는 이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황제에게 글을 올려 사정을 설명했지만, 천자인 무제는 이렇게 말했다. "오손의 풍속을 따라야 할 것이다. 짐은 오손과 함께 흉노를 물리치려 하노라." 잠취가 이에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곤막이 사망하자 잠취가 대신 즉위하였다. … 잠취는 강도공주를 맞이하여,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이름이 소부(少夫)다. (昆莫年老, 欲使其孫岑陬尚公主. 公主不聽, 上書言狀, 天子報曰："從其國俗, 欲與烏孫共滅胡." 岑陬遂妻

14) 東漢 · 班固, 『前漢書』卷九十六下, 「西域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15) 戰國 · 商鞅, 『商君書 · 畫策』: 黃鵠之飛, 一擧千里.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p.1008.
16) 西晉 · 石崇, 『王明君』. 아래 4장 참고.

公主. 昆莫死, 岑陬代立. …… 岑陬尚江都公主, 生一女少夫.)[17]

이처럼 강도공주는 유목민족의 생활환경과 수계혼 풍습으로 겪은 괴로움을 문학과 역사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여성이란 의의가 있다. 강도공주는 군수미와 결혼 후 몇 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오손과의 결합을 강력히 원했던 무제는 강도공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자 태초(太初) 4년(B.C.101)에 해우공주(解憂公主)를 군수미 곤막에게 보낸다. 해우공주도 강도공주처럼 집안 내력에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초왕 유융(劉戎)인데, 유융은 한나라 경제 3년(B.C.154)에 발생한 오초칠국의 난의 핵심 국가인 초나라 왕이며,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 자살했던 인물이다.

해우공주가 살았던 오손의 환경은 강도공주와 다를 바 없었다. 20세 전후의 나이로 오손에 도착하여 불편한 의식주 환경 속에서 생활했음은 물론이거니와,[18] 수계혼 풍속에 따라 3명의 다른 곤막의 아내가 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역적의 손녀라는 이유로 머나먼 서역 땅에 보내졌던 이 나이 어린 여성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아들이 오손의 왕이 되는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다.[19] 그녀는 이 공로를 빙자하여, 아들이 죽은 다음 한선제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썼고, 한선제(漢宣帝)의 허락을 얻어 나이 70세 즈음에 한나라 장안(長安)으로 돌아와 3년을 살다가 죽는다(B.C.49). 『한서』에는 그녀가 한나라로 돌아오려 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17) 東漢 · 班固, 『前漢書』卷九十六下, 「西域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18) 해우공주가 오손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한서(漢書) · 서역전(西域傳)』에 그녀가 한선제(漢宣帝) 감로(甘露) 3년(B.C.51)에 한나라로 왔다고 하면서, "이 해에 나이가 70이었다(時年且七十)"라고 하였으므로, 오손에 도착했을 때(B.C.101) 해우공주의 나이는 20세가 된다.

19) 관련 내용은 『한서 · 서역전』을 참고.

돌아가서 백골이라도 한나라의 땅에 묻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願得歸骸骨葬漢地).[20]

그녀의 이 말 한마디는 어쩌면 화친공주가 이국땅을 밟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가슴 속에서 되새기는 말일 것이다. 왕공의 지위가 가진 풍요로움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이 말은 화친 여성에 관한 서사의 핵심 정서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해우공주는 험난한 일생을 살았지만, 한나라 유방이 흉노와의 화친을 통해 기획했던 불가능한 염원을 실제로 실현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룩했기 때문에, 국가적 임무와 개인적인 염원을 모두 성취했다. 즉 그녀는 한나라의 화친 여성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성공을 실현한 역사적인 여성이다.

이처럼, 한무제 시기 오손으로 갔던 두 명의 화친공주 들은 자신들의 극적인 인생 경험과 문학작품을 후세에 남겨 화친공주가 문학적 소재가 될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도, 중국 문학은 유독 왕소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여기에는 왕소군이 가진 확장성과 계층성, 그리고 새로워진 흉노와의 관계라는 역사적, 정치적 의의가 존재한다.

3. 왕소군의 역사적 형상과 그 의의

해우공주가 오손에 갔던 기원전 101년부터 왕소군이 흉노로 갔던 기원전 33년까지는 한나라에서 흉노로 화친공주를 보낸 기록이 없는데, 주요 원인은 흉노의 쇠퇴와 한나라의 성장 때문이다. 한원제(漢元帝) 시기(B.C.49-B.C.33), 흉노는 호한야선우(呼韩邪單于)의

20) 東漢・班固,『前漢書』卷九十六下,「西域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동흉노(東匈奴)와 질지선우(郅支單于)의 서흉노(西匈奴)로 분열된다. 이 둘은 본래 형제였지만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고, 형인 질지선우의 세력이 동생인 호한야선우를 앞서 있었다. 호한야선우는 이러한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필요했고, 한나라는 이런 흉노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 흉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했기에, 이 둘은 연합관계를 형성했다. 결국, 질지선우는 원제 건소(建昭) 3년(B.C.36)에 서한의 서역도호(西域都護) 감연수(甘延壽)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들은 호한야선우는 자신과 한나라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원전 33년에 신년 인사를 이유로 군신의 예를 갖추어 서한을 찾았다. 왕소군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호한야선우의 부인으로 선발된 것이다.

> 경녕(竟宁) 원년(B.C.34) 춘 정월에 흉노의 호한야선후가 조회했다. 원제께서 조서를 내리셨다. "흉노의 질지선우가 예법을 위반하여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 호한야선우는 한나라의 은덕을 잊지 않고, 한나라의 예법을 사모하여, 조회하여 하례하는 예를 다시 갖추었으며, 변방을 길이 보전하고, 변경의 전쟁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자 원하니, 이에 개원하여 '경녕'이라 하고, 선우에게 대조액정(待诏掖庭) 왕장(王檣, 왕소군)을 하사하니 연지로 삼도록 하노라. (竟寧元年春正月, 匈奴乎韓邪單于來朝. 詔曰: "匈奴郅支單于背叛禮義, 既伏其辜, 乎韓邪單于不忘恩德, 鄉慕禮義, 復修朝賀之禮, 愿保塞傳之無窮, 邊垂長無兵革之事. 其改元為竟寧, 賜單于待詔掖庭王檣為閼氏.)"[21]

이 기록은 한과 흉노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한나라는 한고조 유방 이래 무제 이전까지 열세에 놓였던 국면에서, 다시 무제의 흉노 정벌 사업을 통해 우위를 점하던 과정을 거치고, 원제에 이르러서 서흉노의 수장인 질지선우를 제압하

21) 東漢・班固, 『前漢書』卷九, 「元帝紀」,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고, 동흉노의 수장인 호한야선우를 복속시켰다. 원제의 연호인 "국경의 안녕"이란 의미의 "경녕"은 양국의 관계가 한나라 중심의 국제질서로 재편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흉노의 무력 앞에 굴욕적으로 왕소군을 보냈다는 서사는 후대 문학이 창조한 문학적 허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대 문학에서 왕소군을 황제의 첩(妾)인 '비(妃)'라 칭하며 그녀와 원제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만든 것 역시 허구적 설정이 된다. 그리고, 왕소군의 "대조액정(待诏掖庭)"이란 지위는 원제의 총애를 받지 않은 궁녀란 의미인데,[22] 흉노의 선우는 이제 유씨 종실 공주가 아니라 "양가(良家)" 출신의 후궁을 부인으로 삼을 것을 명령받는 위치로 전락한 것이다.

그녀의 흉노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한서』에 없다. 다만, 왕소군이 흉노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으며, 그녀의 자녀가 몹시 귀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그녀는 '흉노를 편안하게 한 선우의 아내'를 의미하는 "영호연지(寧胡閼氏)"라는 봉호를 받았다.[23] 이런 봉호는 과거 화친 공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칭호였다. 또한, 이것은 그녀가 선우의 정식 부인이란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녀의 자식 역시 세습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녀와 호한야선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도지아사(伊屠智牙師)는 우일축왕(右日逐王)에 봉해졌고,[24] 호한야선우의 장자 복주루선우(複株累

22) '액정(掖庭)'은 궁녀들의 처소이며, '대조(待詔)'는 '황제의 부름을 기다린다'라는 뜻이다.

23) 東漢・班固, 『前漢書』卷九十四下, 「匈奴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24) 范曄의 『後漢書』에는 우일축왕은 선우의 아들이 세습하는 지위로 선우 계승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가 선우 후계자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가 선우 계승권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흉노 선우의 핵심 지위는 좌・우현왕(左・右賢王), 좌・우녹려왕(左・右谷蠡王)의 사각(四角)이며 이 가운데 좌현왕이 후계자가 된다. 아도지아사의 우일축왕이란 지위는 이 사각(四角)이 통제하는 육각(六角)에 속하며, 육각 가운데서도 좌일축왕(左日逐王)을

單于)의 아내가 되어 낳은 두 딸은 모두 공주의 지위를 가지고 흉노의 대귀족에게 시집을 갔다.[25]

지금까지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왕소군은 한나라 화친 여성의 역사에서 변화된 국제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왕소군이 화친 여성으로 가지는 의미는 또 있다. 즉, 한나라는 왕소군을 끝으로 더는 화친을 위한 여성을 흉노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한나라의 마지막 화친 여성으로서 화친 여성의 역사를 종결하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화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왕소군에게 집중시키는 국면을 형성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그녀의 계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공주의 신분이 아니라 궁녀라는 미미한 존재였다. 이런 점에서 그녀가 가지는 압박감은 훨씬 강했을 것이고, 동시에 피지배자였던 민중의 의식과 공명하는 부분이 더 강했을 것이다. 즉, 그녀가 흉노 왕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비약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하므로, 민중의 관심을 끌어당길 가능성은 더 컸을 것이다. 왕소군 문학이 악부에서 시작된 것에는 이런 통속적 관심도 존재했다고 보인다.

현전하는 자료 가운데, 왕소군을 한나라와 흉노의 굴욕적이며 불리했던 관계가 우월적 관계로 변모한 사실과 연관시키는 작업은 특이하게도 한대 상수학 점복서인 『역림(易林)』에서 볼 수 있다.

①「췌지·림(萃之·臨)」
소군이 나라를 지키니, 온 중국이 그 덕을 입네.

보좌하는 '부(副)'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위가 비록 높지만, 다음 지도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위치에 있다. 흉노의 정체 체제에 관한 것은 李春梅,「匈奴政權中"二十四長"和"四角"、"六角"探析」(『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제02호, 2006, pp.47-51)을 참조.

25) 특히 왕소군의 장녀 운(雲)은 대표적 친한파이자 흉노의 명문 대귀족인 수복씨(須卜氏) 가문에 시집을 갔으며, 흉노의 선우 계승 문제와 왕망(王莽)의 대 흉노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이 된다.

중국과 다른 민족이 하나가 되어, 우리 왕실을 받든다.
(昭君守國, 諸夏蒙德. 異類既同, 宗我王室)[26]

②「萃之・익(萃之・益)」
장성이 세워지니 사이가 신하로 복종하네.
사귐과 맺음이 화평하고 훌륭하니 이것은 소군이 내린 복이다.
(長城既立, 四夷賓服, 交和結好, 昭君是福)[27]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에는 위의 ②『췌괘』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원제 경년 원년의 일이다(事在元帝竟寧元年)."[28] 라고 했다. 이것은, 위에 나타난 "소군(昭君)"을 왕소군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관점을 따른다면, ①의 '이류(異類)'는 흉노가 되며, ②의 "장성이 세워지니"는 장성을 경계로 상호불가침과 화평조약이 지속함을 의미한다. 이 글귀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호한야선우가 과거 흉노가 자주 침입했던 하북성(河北省) 승덕현(承德懸) 동쪽에 해당하는 상곡(上谷: 하북성 承德县城东部)에서 서역의 입구인 둔황(燉煌)에 이르는 변경 지역에서 양국의 관리들을 철수시키자는 건의를 뜻한다. 비록 원제가 후응(侯應)의 간언을 선택하여 호한야선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후 40여 년간 전쟁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29]

주목할 점은, '신하로 복종한다', '사귐과 맺음이 화평하고 훌륭하니'와 같은 국제적 평화의 성과와 "중국과 다른 민족이 하나가 되어, 우리 왕실을 받든다."라는 한나라 중심의 국제질서 성립이

---

26) 漢・焦贛, 『焦氏易林』卷四, 「萃之第四十五」,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이 부분은 毛本은 守이고 宋本은 死로 되어 있다. 하지만, 왕소군이 살아서 시집을 갔으므로 '死'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趙延花・馬冀, 「焦延壽詠昭君詩"守"、"是"二字辨析」,『漢字文化』,06, 2006, pp.49-51.
27) 漢・焦贛, 『焦氏易林』卷四, 「萃之第四十五」,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28) 清・顧炎武, 『日知録』卷十八,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29)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中華書局, 1980, pp.741-758.

모두 왕소군의 공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즉, 『역림』이 나온 시기에 이미 한족 중심의 민족 통합주의가 왕소군의 업적으로 서사화되고 있으며, 그녀의 국가를 위한 희생적 행위를 찬양하는 서사가 출현하고 있다.

『역림』은 당나라까지 서한 선제(宣帝)·소제(昭帝) 시기 활동했던 초연수(焦延壽)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근대 학자 여가석(余嘉錫)의 『사고제요변증(四庫提要辨證)』에서는 이 책을 왕망 시기에 활동한 최전(崔篆)의 작품으로 고증하고 있다.[30] 그의 학설을 믿는다면, 왕소군이 국가에 안녕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서한 말에 상당한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역림』은 후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저서이기 때문에,[31] 이 책이 왕소군의 애국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확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 왕소군 형상의 문학적 전형

왕소군에 대한 인물 형상의 구체화 작업과 스토리텔링의 확대재생산 같은 탈역사화된 문학적 형상화는 한악부(漢樂府)에 기원한다. 한대(漢代)에서 당오대(唐五代)까지의 악부가사(樂府歌辭)를 집대성한 송대(宋代) 곽무천(郭茂倩)의 『악부시집(樂府詩集)』은 왕소

30) 『역림』의 작가 문제는 이 「萃」괘의 '昭君'을 王昭君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西漢의 焦贛인가 아니면 東漢의 崔篆인지가 갈린다. 청대 고증학자 고염무는 후자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湯太祥의 『≪焦氏易林≫作者考』는 근대의 역학가 尙秉和의 설을 좇아 소군을 왕소군으로 해석하지 않는다.(湯太祥, 「≪焦氏易林≫作者考」, 『阜陽師范學院學報(社會科學版)』, 제03호, 2004, pp.40-42.), 尙秉和의 왕소군 관련 학설은 尙秉和, 『焦氏易林注論』, 九州出版社, 2010, p.363을 참조.

31) 李學勤主編, 『四庫大辭典』, 吉林大學出版社, 1996, p.1788.

군 관련 음악을 따로 『왕명군(王明君)』으로 분류하면서, "『당서(唐書)·악지(樂志)』에 '「명군(明君)」은 한나라의 음악이다.'(『唐書·樂志』曰, 「明君」, 漢曲也.)"[32]라고 하여 그 기원을 한악부로 명시하고 있다.[33] 또한, 그 곡조가 처량했을 것이라 하고, 그 배경이 되는 서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왕명군의 본명은 소군인데, 진문제(晉文帝) 사마소(司馬昭)의 이름을 피하고자, 진나라 사람들은 그녀를 명군이라고 불렀다. 흉노가 강성함을 믿고 한나라에 청혼하자, 원제가 후궁 가운데 양가의 자녀인 명군을 배필로 삼게 했다. 처음, 무제는 강도왕 유건의 딸 유세군을 공주로 삼아 오손왕 곤막에게 시집보내면서, 말 위에서 비파를 타며 음악을 연주하여, 그녀가 길에서 느낄 심사를 위로했는데, 왕명군을 보낼 때도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王明君, 本名昭君, 以觸文帝諱, 故晉人謂之明君. 匈奴盛, 請婚於漢, 元帝以后宮良家子明君配焉. 初, 武帝以江都王建女細君為公主, 嫁烏孫王昆莫, 令琵琶馬上作樂, 以慰其道路之思, 送明君亦然也).[34]

위의 글에서 "흉노가 강성함을 믿고 한나라에 청혼하자"라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학적 상상에 속한다. 또, 이 글은 왕소군이 주제가 된 한악부를 직접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유세군의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이므로 한악부의 음악적 형태를 확실하게 전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서진(西晉) 시대인 3세기 민간의 왕소군 관련 악부 작품이 왕소군을 말을 타고 애절한 비파를 연주하는 형상의 비련의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음악의 풍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5] 이런 민간 악

---

32) 宋·郭茂倩, 『樂府詩集』, 「王明君」,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33) 왕소군을 소재로 한 『明君曲』의 유전 과정은 吳大順, 『魏晉南北朝音樂文化與歌辭研究』(揚州大學, 博士, 2005), pp.264-269를 참고

34) 宋·郭茂倩, 『樂府詩集』卷二十九, 「相和歌辭」,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35) 위진 시기 음악은 청상곡조의 처량하고 애원한 풍격을 가진다. 吳大順,

부를 흡수하여 만들어진 현전 최초의 작품은 “애절하고 원망적인(多哀怨之聲)”[36] 서정성을 담은 석숭(石崇)의 「왕명군(王明君)」으로, 이 작품은 석숭이 자신의 가기(家伎)인 녹주(綠珠)를 위해 새롭게 만든 가무곡이다.[37]

我本漢家子, 나는 본래 한나라의 여자,
將適單于庭。 이제 선우 궁궐로 시집가네.
辭決未及終, 작별이 채 끝내기도 전에,
前驅已抗旌。 행렬 머리에서는 이미 깃발이 올라갔네.
僕御涕流離, 마부도 이별에 눈물을 흘리고,
轅馬為悲鳴。 말들도 슬픈 울음을 우네.
哀鬱傷五內, 슬픔으로 속이 쓰라리며,
泣淚霑珠纓。 눈물이 진주 모자 끈을 적시네.
行行日已遠, 수 없는 날을 가고 가서,
乃造匈奴城。 마침내 흉노의 도성에 닿았네.
延我於穹廬, 나를 양탄자 집으로 맞이하더니,
加我閼氏名。 나에게 연지란 칭호를 주네.
殊類非所安, 다른 민족이라 편하지 못하고,
雖貴非所榮。 귀한 신분이지만 영화롭지 않네.
父子見凌辱, 아버지와 아들에게 욕을 당하니,
對之慙且驚。 이것이 부끄럽고 두렵구나.
殺身良未易, 죽는 일조차 쉽지 않아,
默默以苟生。 말없이 구차히 살아가네.
苟生亦何聊? 구차한 삶 또한 무엇을 하소연할까?
積思常憤盈。 쌓인 그리움으로 가슴만 답답하네.
願假飛鴻翼, 기러기 날개 빌려
棄之以遐征。 다 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구나.

위의 논문, p.15 참조.

36) 宋・郭茂倩, 『樂府詩集』卷二十九, 「相和歌辭」,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37) 宋・郭茂倩, 『樂府詩集』卷二十九, 「相和歌辭」,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 漢人憐其遠嫁, 爲作此歌. 晉石崇妓綠珠善舞, 以此曲教之, 而自製新歌.

飛鴻不我顧, 날아가는 기러기 나를 돌아보지 않고,
佇立以屛營。 오랫동안 서성이며 방황하네.
昔為匣中玉, 이전엔 상자에 담긴 구슬,
今為糞上英。 지금은 오물 위의 꽃.
朝華不足歡, 아침 꽃은 반길 것이 못 되니,
甘為秋草並。 차라리 가을 풀처럼 되고 싶네.
傳語後世人,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노니,
遠嫁難為情。 시집을 멀리 가니 정말 고달프다오.[38]

그가 지은 이 가사(歌辭)의 구성을 보면 왕소군이 한나라 궁궐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녀가 흉노에 도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의 핵심 구절은 자신을 한나라의 여성이라고 서술한 '한가자(漢家子)'다. 이런 자기 인식 속에는 강성한 흉노의 핍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나라를 떠나야 하는 국가적 슬픔과 개인적 슬픔이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고, 작별이 더디고, 행렬의 출발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고 있다. 다음 구절인 "마부도 이별에 눈물을 흘리고, 말들도 슬픈 울음을 우네."가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큰 슬픔에 모든 사람이, 그리고 말조차 공감하여 울음을 울고 있다는 비극의 보편성을 노래한다.

그녀의 "한나라의 여성"이란 자기 인식은 결혼과 수계혼 풍습, 생활 문화와의 충돌을 만들어낸다. 흉노에 도착해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너무나 다른 생활 문화와 존귀하지만 달갑지 않은 '연지'라는 칭호였다. 즉, 흉노에서의 생활이 비록 선우의 부인이란 존귀한 신분이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고통이 커서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는 죽음과 삶의 경계

38) 宋・郭茂倩, 『樂府詩集』卷二十九, 「相和歌辭」,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에서 서성이는 자기 존재 인식을 드러낸 강도공주의 시 “황곡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願爲黃鵠兮還故鄕)”를 차용한 것이다.

이 시에서 눈에 띄는 비유는 자기를 ‘상자에 담긴 구슬’에 비유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한나라 시절 생활을 표현한 것으로, 비록 자신은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 그리고 고아한 품격이 있었으나, 원제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은근한 원망의 정서를 잘 담고 있다. 이 구절의 대우가 되는 표현인 ‘지금은 오물 위의 꽃’이란 표현은 다소간 거친 표현이지만, 작품의 성격이 가무라는 공연적 성격의 민간 가요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분위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침 꽃은 반길 것이 못 되니, 차라리 가을 풀 되고 싶네”라는 표현은 선우의 연지라는 짧은 화려함을 가진 현재의 생활보다, 바람에 흩날리는 고된 삶이더라도 차라리 한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3세기 문학에 나타난 왕소군이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여성으로서, 비극적이며 고통스럽고 원망하는 이미지로 구체화 되었다면, 조금 뒤인 남북조시대에는 왕소군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작업은 왕소군에게 순응과 능동이란 모순적인 2가지 성격을 각각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서경잡기(西京雜記)』와 『후한서(後漢書)』의 기록이다.

『서경잡기』의 ‘서경(西京)’은 한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의미하고, ‘잡기’는 서한의 풍물과 풍속, 그리고 당시 명사들의 일화를 의미한다.[39] 이 책은 갈홍(葛洪)이 유흠(劉歆)의 역사 저술에서 반고의 『한서』와 다른 점을 발췌했다고 했지만, 역대로 유흠의 저술이 아니란 의심을 받았고, 또, 갈홍이 저술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훨씬 후대에 출현한 문헌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40] 하지만, 일반

39) 李學勤主編, 『四庫大詞典』, 吉林大學出版社, 1996, p.2167.

40) 程章燦, 「『西京雜記』的作者」: 葛洪利用漢晉以來流傳的稗史野乘、百家短書鈔撮編集而成的. 『中國文化』, 01, 1994, pp.93-96.

적으로 갈홍이 한대에서 서진에 이르는 각종 문헌을 취합하고, 대표적 작가인 유흠의 이름을 기탁하여 편찬한 저술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진시대의 기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책은 문인적 필치가 농후하여 남조와 당나라 문학가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고, 종종 문학 창작의 전고(典故)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왕소군의 이야기는 이 책의 제2권 첫 부분에 출현한다.

> 원제에게는 후궁이 많아서 정해놓고 만날 수가 없었다. 이에 화공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그림을 보고 불러서 만났다. 여러 궁녀는 모두 화공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많게는 10만을 주었고, 적어도 5만 이하로는 주지 않았으나, 유독 왕장(왕소군)만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서 원제를 뵐 수가 없었다. 흉노가 입조하여 미녀를 구해 연지로 삼으려 하자, 황제는 그림을 보고, 왕소군을 보내기로 했다. 떠날 무렵이 되자 그녀를 불러 보았는데, 용모가 후궁 가운데 제일이었으며, 응대도 뛰어나고, 행동도 품위가 있었다. 원제는 후회했지만, 명단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원제는 외국에 대한 신의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이 일을 조사하여, 화공을 모두 기시했다. 이들의 집을 조사하여보니 재산이 모두 수백만을 넘었다. 화공 가운데는 두릉(杜陵)의 모연수(毛延壽)는 사람을 그리면 아름답고 못생기고 늙고 젊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 안릉의 진창(陳敞), 신풍(新豐)의 유백(劉白)과 공관(龔寬)은 모두 소와 말, 나는 새를 잘 그렸고, 인물도 잘 그렸지만, 미적인 표현은 모연수에 미치지 못했다. 하두(下杜)의 양망(陽望)도 그림을 잘 그렸는데, 색채감이 뛰어났다. 번육(樊育) 역시 색을 잘 표현했다. 이들이 모두 같은 날 기시(棄市)되자 서울에 화공이 드물게 되었다(元帝後宮既多, 不得常見, 乃使畫工圖形, 案圖召幸之. 諸宮人皆賂畫工, 多者十萬, 少者亦不減五萬. 獨王嬙不肯, 遂不得見. 匈奴入朝求美人為閼氏, 於是上案圖, 以昭君行. 及去, 召見, 貌為後宮第一, 善應對, 舉止閑雅. 帝悔之, 而名籍已定, 帝重信於外國, 故不復更人. 乃窮案其事, 畫工皆棄市, 籍其家, 資皆巨萬. 畫工有杜陵毛延壽, 為人形, 醜好老少, 必得其真. 安陵陳敞, 新豐劉白、龔寬, 並

工為牛馬飛鳥, 亦肖人形, 好醜不逮延壽. 下杜陽望亦善畫, 尤善布色. 樊育亦善布色. 同日棄市. 京師畫工, 於是差稀).[41]

왕소군의 신분에 대한 것은 『한서』의 내용과 같지만, 인물 형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새로운 플롯이 첨가되어있다. 우선 이 글은 왕소군에게 아름다운 용모와 품위 있는 모습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격조를 잃지 않는 귀족적이며 정숙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형상은 당시 상상된 고아한 여성의 모습으로 왕소군을 묘사한 것으로, 뒤에서 다룰 『후한서』에 나타난 왕소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또한, 이 책은 모연수라는 탐관을 창조하여 왕소군이 떠나가게 된 원인을 궁정의 불합리한 현실 때문으로 돌렸는데, 이는 왕소군의 꿋꿋하고 순종적 인격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그런데,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왕소군이 아니라 황제인 원제다. 원제는 자신이 바라는 여성을 만날 수 없었는데, 궁녀가 많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화공의 직무 태만과 탐욕 때문이었다. 원제는 왕소군이 자신이 원하던 여성임을 인지한 순간 타락한 화공을 모두 혹형에 처해 기강을 바로잡는다. 즉, 『서경잡기』의 서사는 정치적 타락을 바로잡는 원제의 이야기가 주된 플롯을 형성한다. 왕소군의 이야기는 이 교훈적 이야기를 위한 장치로 존재할 뿐이다. 즉, 왕소군이 흉노와 한나라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사라지고, "서울에 화공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원제의 정치 쇄신책의 결과만 서술하고 있다. 이 서사는 문인 서사가 왕소군 서사를 품어내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미녀와 같은 통속적인 감각의 유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쇄신이라는 교훈을 강조하는 귀족 문인 서사가 지배하는 구조다.

---

41) 晉 · 葛洪, 『西京雜記』卷二,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서경잡기』가 황제인 한원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범엽의 『후한서』는 서사의 초점을 왕소군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왕소군을 순종적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 소군의 자는 '장(嬙)'이며, 남군(南郡) 사람이다. 처음 원제 때 양가 자녀로 뽑혀 액궁에 들어갔다. 당시 호한야가 내조하자 원제가 궁녀 5명을 하사할 것을 명했다. 소군은 입궁한 지 수년이 되었지만, 황제를 만나지 못해 슬픔과 원망이 쌓였고, 이에 액정령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자청했다. 호한야가 연회에서 하직 인사를 할 무렵, 황제께서 5명의 여성을 불러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소군의 아름다운 용모와 단정한 자태가 한나라 궁실에 빛났고, 자신 있는 태도는 좌중을 동요시켰다. 황제가 그녀를 보고 매우 놀라며 만류하려고 했지만, 믿음을 잃을 수 없어서 결국 흉노에게 주었다.(昭君字嬙, 南郡人也. 初, 元帝時, 以良家子選入掖庭. 時呼韓邪來朝, 帝敕以宮女五人賜之. 昭君入宮數歲, 不得見御, 積悲怨, 乃請掖庭令求行. 呼韓邪臨辭大會, 帝召五女以示之. 昭君豐容靚飾, 光明漢宮, 顧景裴回, 竦動左右. 帝見大驚, 意欲留之, 而難于失信, 遂與匈奴.)[42]

이 글은 『한서』와 『서경잡기』의 기록과 비슷하거나 연역한 부분도 있지만, 첨가되거나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그녀의 고향으로 남군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름을 소군(昭君)으로, 자를 "장(嬙)"으로 기록하고, 『한서』의 "대조액정(待詔掖庭)"이란 기록을 "양가의 자식을 선별하여 액정에 들였다"라고 발전시켰다. 또한, 그녀의 용모에 대한 미화, 오랫동안 원제를 만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원제가 국제적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보냈다는 설정은 『서경잡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 기록은 『서경잡기』와 달리 왕소군이 원제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42) 南朝宋・范曄, 『後漢書』卷一百十九, 「南匈奴列傳」,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흉노로 가는 것을 자원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서술이지만, 석숭의 『왕명군』에 나타난 "이전엔 상자에 담긴 구슬(昔為匣中玉)"이란 한나라 궁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구체화한 형태다. 특히, 이 내용은 금곡(琴曲)의 해제를 다룬 책인 『금조(琴操)』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후한서』의 기록이 음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 문학과의 연계성을 방증하고 있다.

여성이 원망의 마음으로 권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서사는 민간 문학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악부시 『유소사(有所思)』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남성에 대한 불만으로 절교를 선언하고 있다.

聞君有他心,	그대에게 다른 마음 있다는 것 듣고
拉雜摧燒之。	흩어버리고는 태워 버렸지
摧燒之,	태운 다음에는
當風揚其灰。	바람에 재를 날려 보냈지.
從今以往,	오늘 이후
勿復相思,	다시는 그리워하지 않으리!
想思與君絕！	그대에 대한 그리움 끊어버리리![43]

『유소사』의 여성은 본래 대모(玳瑁)라는 바다거북 껍질에 두 알의 진주가 박힌 진귀한 비녀인 쌍주대모잠(雙珠玳瑁簪)을 그녀가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주려 했다. 비녀에 대한 이런 과장된 묘사는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그 남성의 변심을 알게 되면서 이 물건을 훼손하고 절교를 선언한다. 그녀가 이 비녀를 부수며 불 지르는 모습은 실연의 깊이와 함께, 미련을 단호히 단절하는 주체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악

43) 宋・郭茂倩, 『樂府詩集』卷二十九, 「相和歌辭」,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부인 『맥상상(陌上桑)』에 묘사된 나부(羅敷) 역시 권위에 당당히 저항하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악부에는 실연에 연연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자신을 개척하며 권위에 당당히 저항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범엽의 『후한서』에 표현된 왕소군의 인물 형상에는 『서경잡기』에 보이는 외유내강한 귀족 여성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민간 여성의 성격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런 서사에는 중국 문화의 주류적 서사로 편입되는 데 있어 전통 이데올로기와 배치되는 2가지 면이 존재하는데, 왕소군이란 일개 궁녀가 황제인 원제에 대한 원망을 품고 이민족 지역으로 떠났다는 내용은 봉건 국가 이데올로기에 상충하는 불충(不忠)을 품고 있고, 그녀가 이민족에게 시집을 간 이후 "영호연지"라는 봉호를 받고, 그 아들 항렬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이 모두 귀족의 반열에 오른 서사는 아들 항렬과의 재혼이란 문제, 즉,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하는 "정조"라는 가치에 배치되는 서사이다.

이런 문제는 『금조』에 나타난 왕소군의 자살과 그녀의 무덤인 청총(青塚)에 관한 서사로 해소되는 형태를 보인다. 『금조·원광사유가(怨曠思惟歌)』에는 그녀의 탄생, 입궁(入宮), 출새(出塞), 그리고 심회(心懷)의 내용이 담겨있다.

> 왕소군은 제나라(齊國) 왕양(王襄)의 딸이다. 왕소군이 17세 되던 해에 아름다운 얼굴로 나라에 소문이 파다했다. 왕양은 소군의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고, 집 밖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청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두 거절하고는 원제에게 헌상하였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왕후가 되지 못하고, 후궁에 충원되었다. 5·6년이 흐르자 왕소군은 원망하는 마음이 쌓였고, 고의로 자신의 용모를 가꾸지 않았다. 원제가 매번 후궁을 둘러 볼 때 왕소군의 거처를 스쳐 지날 뿐 들르지 않았다. 이후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 조정에 사신을 보내 하례를 했다. 원제가 주연을 베풀었는데 후궁에게 차려입고 배석하라고 명했다. 왕소군은 원망이 오랫

동안 쌓였고, 원제를 모시는 사람에 끼지 못하자, 화장을 고치고 옷을 아름답게 차려입으니, 얼굴과 몸에서 광채가 났다. 모두 열을 맞춰 앉으니, 원제가 흉노의 사자에게 말했다. “선우께서는 무슨 바라는 것이 있는가?” 사자가 대답했다. “진귀한 보물은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만, 여자가 중국처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자 황제께서 후궁들에게 하문하셨다. “내가 너희들 중 한 명을 선우께 하사하려 하니, 누구든 갈 수 있는 사람은 일어서도록 하라.” 이에 왕소군이 탄식하며 자리에서 나와 원제의 앞에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천첩은 요행히 후궁에 충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용모가 추하여 폐하의 마음에 들지 못하였으니, 흉노로 가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당시 선우의 사자가 옆에 있었다. 원제는 매우 놀라며, 그녀를 다시 말리지는 못하는 것을 후회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탄식하며 “짐이 잘못했구나.”라고 하고는, 마침내 그녀를 사신에게 주었다. 왕소군이 흉노에 도착하자 선우는 크게 기뻐하며 ‘한나라가 나를 후하게 대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여 주연을 베풀고 사자를 보내 둥근 백옥 한 쌍, 준마 10필, 흉노의 보물로 한나라에 답례하였다. 왕소군은 처음에는 원제가 처음 만나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마음이 즐겁지 않았으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이에 『원광사유가』를 지었다. …… 왕소군에게는 아들 세위(世違)가 있었는데, 선우가 죽고 아들 세위가 선우가 되었다. 흉노는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왕소군이 세위에게 말했다. 너는 “한나라 사람이 되겠는냐 아니면 흉노인이 되겠느냐?” 세위가 말했다. “흉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왕소군은 약을 먹고 자살했다. 선우가 그녀의 장례를 치뤘다. 흉노에는 흰 풀이 많지만, 그녀의 무덤만 홀로 푸르렀다.(王昭君者, 齊國王襄女也. 昭君年十七時, 顔色皎潔, 聞于國中. 襄見昭君端正閑麗, 未嘗窺看門戶, 以其有異于人, 求之皆不與. 獻於孝元帝, 以地遠, 既不幸納, 叨備后宮. 積五六年. 昭君心有怨曠, 偽不飾其形容. 元帝每歷后宮, 疏略不過其處. 后單于遣使者朝賀, 元帝陳設倡樂, 乃令后宮妝出；昭君怨恚日久, 不得侍列, 乃更修飾, 善妝盛服, 形容光輝而出. 俱列坐, 元帝謂使者曰：“單于何所愿樂?” 對曰：“珍奇怪物, 皆悉自備；惟婦人丑陋, 不如中國.” 帝乃問后宮, 欲一女賜單于, 誰能行者起. 於是昭君喟然越席而前曰：“妾幸得備在后宮, 粗丑卑陋, 不合陛下之心, 誠願得行.” 時單于使者在旁. 帝大驚, 悔之不得復止. 良久太息曰：“朕已誤矣!” 遂以與之. 昭君至匈奴, 單于大悅, 以為漢與我厚, 縱酒作樂, 遣使者報漢, 送白璧一

雙, 駿馬十匹, 胡地珠寶之類. 昭君恨帝始不見遇, 心思不樂, 心念鄉土, 乃作『怨曠思惟歌』曰,……. 昭君有子曰世違. 單于死, 子世達繼立. 凡為胡者, 父死妻母. 昭君問世違曰 : "汝為漢也? 為胡也?" 世違曰 : "欲為胡耳." 昭君乃吞藥自殺, 單于舉葬之, 胡中多白草, 而此冢獨青)[44]

『한서』에서는 양가(良家)의 여성이란 출생 신분만 기록되어 있었고, 『후한서』에서는 고향의 지명이 첨가되었을 뿐이지만, 여기에서는 출생 지역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시절, 그리고 그녀가 후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완전한 한 인간의 형태가 그려지고 있다. 또한, 그녀가 흉노로 시집을 가는 것을 자원하였다는 서사는 『후한서』 계통의 원망 정서를 계승하고 있다.

이 글의 저자에 대해서는 서한시대 환담(桓譚 : B.C.20-A.D.56), 동한의 저명한 학자이자 문학가 채옹(蔡邕 : 132-192), 동진 시기 공자 22세손 공연(孔衍, 268-320)이란 주장이 있으나, 모두 확실한 것이 아니라서,[45] 작가를 통해 책의 연대를 상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처음 『금조』의 왕소군 이야기를 인용한 사람이 남조 양(梁)나라 유효표(劉孝標)이고, 그가 『세설신어』의 주석을 대략 양무제 천람(天覽 : 502-519) 시기에 달았기 때문에, 『금조』의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내용이 양나라 천람 시기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 글이 집중하는 부분은 원망, 그리움, 그리고 한족 문화 이데올로기다. 원망은 앞서 『후한서』에서 언급된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원제에 대한 것이고, 그리움은 흉노에서 고향인 한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석숭의 「왕명군」을 계승하고 있다. 이 글이 이전 서사와 다른 점은 왕소군의 자살과 청총을 통해 이전에 제시된 국

44) 吉聯抗輯, 『琴操』, 中國古代音樂文憲叢刊, 人民音樂出版社, 1990, pp.52-54.

45) 馬萌, 「≪琴操≫撰者考辨」,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02, 2005, pp. 61-66. 『금조』의 내용이 『후한서』를 따르면서도 훨씬 더 풍부하다는 점에서 『후한서』보다 후대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가 이데올로기 문제인 불충과 윤리 이데올로기 문제인 아들 항렬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그녀가 원제에 대한 원망 때문에 흉노로 갔다는 불충의 서사는 하얗게 메마르고 황량한 흉노의 초원 위에 홀로 사시사철 푸른 빛을 발산하는 무덤인 "청총"을 통해 그녀의 변치 않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신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해소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아들 세위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한다는 설정은 죽음으로써 정조를 지킨 것이며, 이는 한족의 문화 코드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계혼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금조』에서 어머니 왕소군과 아들 세위와의 결혼 설정은 심각한 역사적·문화적 오류를 담고 있지만,[46] 이 자극적 서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사회적인데, 바로 흉노가 금수와 같으며, 한족과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왕소군은 자살을 통해 이민족 문화에 대항하고 한족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지킨 여성이 됨으로써 중국 주류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이 기록과 연관된 「원광사유가(怨曠思惟歌)」라는 작품은 왕소군의 자전적 시로 알려져 있다.

秋木萎萎, 其葉萎黃. 가을 나무 무성한데, 잎에 단풍이 졌네.
有鳥爰止, 集於苞桑. 새가 머무는데, 뽕나무 뿌리에 모여있네.
養育羽毛, 形容生光. 아름답게 기른 깃털, 용모가 빛이 나네.
既得升雲, 獲侍帷房. 구름 타고 날아올라. 비단 휘장 방에서 노니네.
離宮絕曠, 身體摧藏. 궁궐은 적막하고 아무도 없어, 나의 심장을 도려내네.
志念幽沉, 不得頡頏. 마음이 우울하여 자유롭게 날 수 없구나.

---

46) 흉노의 수계혼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결혼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또한, 그녀의 아들인 이도지아사는 선우를 계승할 자격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즉, 이 서사는 오손으로 시집을 갔던 해우공주의 서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雖得餱食, 心有徊徨. 밥은 먹지만 마음은 방황하네.
我獨伊何, 來往變常. 어찌 나만 홀로 오고 감이 잘못된 것일까?[47]
翩翩之燕, 遠集西羌. 제비 훨훨 날아서, 멀리 서강에 모였네.
高山峨峨, 河水泱泱. 높은 산은 까마득하고, 강물은 넘실대네.
父兮母兮, 道里悠長. 아버지 어머니, 길이 아득히 멀어요.
嗚呼哀哉, 憂心惻傷. 아, 슬프구나. 근심으로 애달픈 마음이여 ![48]

이 시에서는 자신을 새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희망을 상상의 새인 '황곡'에 비유한 강도공주의 시적 심상을 이어받았지만, 이 새는 현실에 얽매여 아픔을 느끼는 새다. 이 시의 구성은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부분은 그녀가 태어나 입궁한 시기까지를 그리고 있다.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살던 어여쁜 산새가 '뽕나무 뿌리(苞桑)'에 모여 있다고 했는데, '뽕나무 뿌리'는 『주역·비괘』에 의하면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과 연관될 수 있어,[49] 그녀가 "문밖의 일을 엿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새가 구름을 얻었다고 한 것은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이니, "비단 휘장 방(帷房)"은 곧 궁녀들이 사는 액정(掖庭)이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왕소군의 궁녀로서의 삶이다. 원제가 찾아주지 않으니 외로움에 사무치고, 원제의 비가 되고 싶은 그녀의 뜻 역시 펼쳐지지 못한다. 이곳에서의 삶은 의식주는 해결되었으나 자기 뜻과는 어긋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녀가 흉노에 가서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서강'은 본래 중국 사천 일대의 강족을 의미하지만, 흉노에 대한 비유로 사용됐다.[50] 마지막 부분은 그녀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

47) 明·馮惟訥, 『古詩紀』卷十二 : 來, 一作改.
48) 吉聯抗輯, 『琴操』, 中國古代音樂文憲叢刊, 人民音樂出版社, 1990, pp.53-54.
49) 『易·否』: 其亡其亡, 繫於苞桑. 孔穎達『疏』: 若能其亡其亡, 以自戒愼, 則有繫於苞桑之固, 無傾危也. 羅竹風,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6, p.354.

음이다. “까마득히 높은 산”과 “넘실대는 강물”은 그녀가 느끼는 흉노와 한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이다. 새로서는 이런 장애물을 넘어 날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고, 고국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두는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울적하고 슬픈 마음’이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금 조』에 나타난 작품 해제의 구성을 거의 다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지만, 시의 내용이 주로 고통스러운 삶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맞춰져 있어서, 한족 문화 정체성의 수호라는 가치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왕소군은 일개 원제의 궁녀로서, 한나라와 흉노 사이 화친을 위한 도구였을 뿐 주목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51] 하지만, 화친 여성의 역사에서 바라본다면, 왕소군은 한족 중심의 국제질서가 재편된 상황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한나라 화친 여성을 총결하는 존재로서 화친 여성을 다루는 문학적 공간을 확장했다.

왕소군 개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녀의 일생은 비극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원제 경녕인 기원전 33년 이후, 왕망이 신(新)을 세워 흉노와 갈등하기 전인 기원후 11년까지, 한과 흉노는 전쟁 없

50) ‘서강’을 흉노의 비유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시는 지리적 오류가 너무 크다. 過元琛은 『中國文學中王昭君形象的古今演變』에서 이를 근거로 이 시가 왕소군이 지은 시가 아니라고 했다(復旦大學, 博士, 2010. p.9). 이 주장에 논리적 오류는 없지만, 이 논리를 확장한다면 시 자체가 왕소군에 대한 시가 될 수 없다.

51) 翦伯贊, 「從西漢的和親政策說到昭君出塞」, 『翦伯贊全集 · 第4卷』, 河北敎育出版社, 2008, p.834.

는 나날을 보낸다. 유례없는 평화가 도래한 국제적 경축일에 왕소군은 마지막 화친 여성이 되어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고국을 떠나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이런 국가 권력에 희생당하는 비극 요소와 함께, 왕소군이 공주가 아닌 일개 궁녀로서 흉노 선우의 부인이 되었다는 점은 민중 계층의 공명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점이 화친 여성의 원형적 이미지를 최초로 문학화한 강도공주나 화친공주의 성공적 사례가 되었던 해우공주 대신 왕소군이 민중 문학의 재서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로 보인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리고 화친 여성을 종결하는 의의를 지닌 여성에 대한 문학적 서사는 2가지로 나타났다. 민중문학적 성격의 그녀는 운명을 피동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한다. 왕소군은 황제의 사랑을 원하지만, 이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자원하는 방식으로 흉노로 가서 신분을 상승시킨다. 또한, 이런 행위를 통해 최고 권력자인 한나라 원제를 후회하게 하고, 흉노 선우의 연지로서 한과 흉노 사이에 국제 평화를 가져오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런 과장된 거대 서사는 미약한 존재의 체제에 대한 승리와 불합리한 세계를 극복하는 인물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사는 그 갈등의 요소가 개인적 서사 안에 존재하는 데 그치고, 사회적 의의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류문화에 편입되기 어렵다.

그녀를 주류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드러내는 작품은 석숭의 『왕명군』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그녀에게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왕소군 서사에 통치 이데올로기를 접목한 것은 『서경잡기』에 보인다. 이 책은 그녀를 수동적이면서 고아한 성품으로 묘사했고, 실추된 원제의 권위에 대해서, 화공의 잘못을 규명하여 국가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서사를 통해 황제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금조』는 이전의 서사를 종합하면서, 동시에 왕소군에게 존재하는 불충이란 성격과 윤리적 문제를 주류 이데올로기로 해소한다. 즉, 그녀의 적극적 '출새'가 의미하는 왕권에 대한 도전과 고국을

저버린 불충 요소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소하고, 수계혼이 위협하는 여성의 정조 문제를 자살로 해소하고 있다. 특히, 흉노의 메마른 대지 위에 늘 푸르른 무덤을 의미하는 '청총'은 죽음을 통한 봉건 이데올로기의 현시를 상징하는 표식이 된다. 이런 죽음을 통한 한족 이데올로기의 수호라는 서사를 통해 왕소군의 존재는 개인을 초월해서 민족과 결합할 수 있었고,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불충과 정조의 무게를 가늠해 본다면, 후자가 더 무겁게 지워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녀는 후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西漢・司馬遷,『史記』,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東漢・班固,『前漢書』,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漢・焦贛,『焦氏易林』,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晉・葛洪,『西京雜記』,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南朝宋・范曄,『後漢書』,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宋・郭茂倩,『樂府詩集』,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明・馮惟訥,『古詩紀』,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清・顧炎武,『日知錄』, 文淵閣四庫全書電子板, 1999.
羅竹風,『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6.

2. 논문 및 단행본

강리,『왕소군의 이미지 변천과 화이관념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2014.
過元琛,『中國文學中王昭君形象的古今演變』, 復旦大學, 博士, 2010.
洪瑀欽,「漢宮女 王昭君에 대한 中國人의 情感」,『女性問題硏究』, 제13권,

1984, pp. 85–101.
兪泰揆, 「王昭君 出嫁 和親의 主要 原因」, 『중국문화연구』, 제9호, 2006, pp. 307–324.
兪泰揆, 「西漢의 和親 역사와 王昭君 흉노 출가의 背景」, 『중국문화연구』, 제25호, 2014, pp. 161–181.
이소현, 『王昭君 故事의 변천과정 硏究』, 東國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 2004.
정수일 저, 『실크로드 사전(ebook)』, 파주, 창비, 2013.
吉聯抗輯, 『琴操』, 中國古代音樂文憲叢刊, 人民音樂出版社, 1990.
翦伯贊, 「從西漢的和親政策說到昭君出塞」, 『翦伯贊全集・第4卷』, 河北敎育出版社, 2008.
李春梅, 「匈奴政權中“二十四長”和“四角”、“六角”探析」(『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제02호, 2006, pp. 47–51.
李學勤主編, 『四庫大辭典』, 吉林大學出版社, 1996.
馬萌, 「≪琴操≫撰者考辨」, 『中國社會科學院硏究生院學報』, 02, 2005, pp. 61–66.
湯太祥, 「≪焦氏易林≫作者考」, 『阜陽師范學院學報(社會科學版)』, 제03호, 2004, pp. 40–42.
吳大順, 『魏晋南北朝音樂文化与歌辭硏究』, 揚州大學, 博士, 2005.

(투고일: 2021. 5. 23 심사완료일: 2021. 6. 20 게재확정일: 2021. 6. 22)

서주영
소 속: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인문대학 교수연구동 인문과학연구소
전자우편: xuzheyouyou@outlook.com

권응상
소 속: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인문대학 교수연구동 3508호
전자우편: eskown@daegu.ac.kr

[Abstract]

The Literary Transformation of Wang Zhaojun's Figure

Seo, Joo-young · Kwon, Ueng-sang

Wang Zhaojun is a woman who was send to King of Xiongnu, Huhanya for harmony between the Han and Xiongnu in 33 BC. Before her, all women sent to foreign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her friendship were Han Dynasty princesses, and among them there are women who have the beginning of the literature of the Friendship and the positive completeness of the narrative friendship woman. Wang Zhaojun has a lower status than these, and the specific narrative is weak, but as a representative figure of a friendly woman, she has become a creative material for literature, and as she has a representativeness that penetrates history, she is the rank of the four major beauty women in China. She became a representative of Chinese culture, because she was given her historical and national significance in addition to the popular value of beauty in Chinese culture.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archetype in which historical existence is transformed by cultural values and accepted as a woman representing oneself by analyzing the subversion of historical facts and re-creation of the tragic feminine image existing in the literature documenting Wang Zhaojun.

Key words: Wang Zhaojun, friendship women, Xijingzaji, houhanshu, qincao